

연구논문

중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동인: 중앙-지방의 정치적 신호, 국제사회의 압력을 중심으로*

김 대 욱** · 구 정 우***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동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가의 정치적 신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라진 정당성 환경이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했고, 국가의 정치적 신호를 중앙 및 지방 수준으로 구분했다. 상해 및 심천거래소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신왕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를 종속변수로 선정해서 기업 시계열 자료와 결합해서 패널 자료를 구성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506개 기업의 14,497건의 패널데이터에 대한 임의효과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 글로벌 변수의 효과는 미미했다. 국가기업 관계 변수 가운데 소유구조 및 중앙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했지만, 지방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국가의 정치적 신호가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동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동시에, 기업에 미치는 중앙 및 지방 수준의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적 함의를 드러낸다.

주제어: 중국 상장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제도주의, 국가-기업관계, 정치적 신호, 중앙-지방 관계, 순서형 로짓모형

* 논문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한국사회학』의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6S1A3A2925085).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제1저자(dwkim0311@gmail.com).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교신저자(jkoo@skku.edu).

I. 서론

미국식 자본주의의 침범으로 여겨졌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중요성이 중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 하청 공장의 억압적 노동 관행이 알려지면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중심으로 한 CSR 관행이 중국에 도입되었다(Yu, 2008; Lin, 2010).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오염, 빈부 격차 등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은 ‘조화사회’ 건설을 표방했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중국의 CSR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2,000여 개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빈곤퇴치,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CSR을 이행하고 있다(Marquis and Qian, 2013; Zhong, Xu, Liao, and Zhang, 2019).

어떤 요인이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는가?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도적 압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국가의 ‘정치적 신호(political signaling)’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Lim and Tsutsui, 2012; Marquis and Qian 2013; Guo, He, and Zhong, 2018). 그러나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압력에 대한 측정과 분석은 미진하고, 정치적 신호가 전달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계열 연구들은 글로벌 제도와 문화의 영향력보다는 국내의 제도적 압력에 초점을 맞췄고(Lau, Lu, and Liang, 2016; Yin, 2017), 정치적 신호에 주목한 연구들은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었다(Liao, Lin, and Zhang, 2018; Wang, Reimsbach, and Braam, 2018). 특히 국가를 동질적 주체로 간주하여, 중앙-지방정부가 기업과 맺는 복합적인 연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본 연구는 세계사회이론(world society theory)이 주목하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중국의 특수한 국가자본주의를 고려한 ‘국가-기업 관계’를 주요 프레임으로 활용해서 중국 CSR 이행 요인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CSR 도입과 제도에 주목하는 기존의 ‘확산(diffusion)’ 연구와는 달리 CSR ‘이행 수준(implementation)’에 주목한다. 세계사회 발(發) 글로벌 제도 압력을 세분화·변수화하여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점을 보충하는 한편, 정치적 신호 전달의 주요 행위자를 중앙-지방으로 구

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확인한다. 이는 중국 CSR 이행 동인으로 세계사회의 문화적 압력과 국가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중국 상황에 적합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상해 및 심천거래소 상장기업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2,506개 기업의 14,497건의 연도-기업 정보를 통계 분석에 포함했다. CSR 이행 수준 지표로 허윈왕(和讯网)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를 활용했고, 이를 중국 기업데이터베이스인 중국주식시장 및 회계연구 데이터베이스(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 CSMAR) 등과 결합하여 횡단-시계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에서 CSR 개념이 등장하고 관련 규범이 확산된 역사적,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CSR 관행의 확산과정을 도입 및 제도화 단계와 이행 단계로 구분하고 중국기업들이 어떻게 CSR을 도입·이행했는지, 기업 간 이행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기업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모형과 관련 가설을 제시했고, 자료와 변수를 소개했으며, 횡단 시계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했고,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했으며, 후속 연구 주제를 제시했다.

II. 중국에서의 CSR 규범의 확산

중국 CSR의 기원을 전통 사상 및 문화, 가족 기업의 자선 전통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활발했지만 현대적인 CSR 규범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된다(Wang and Juslin, 2009; 남영숙, 2015).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반사회(企业办社会)’ 개념은 중국의 국가-기업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공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반사회 개념은 “정부는 기업을 책임지고, 기업은 사회를 책임진다(政府办企业, 企业办社会)”는 원리를 핵심으로 하며, 정부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당-국가체제의 일부인 기업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杜莹秦学京屈荣, 2015). 기업반사회의 원칙 하에 국유기업이 단위 소속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보장한 것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기업의 성격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현대적 CSR 관행과 차이가 있다(이주영, 2015; 2017).

현대적 의미의 CSR 규범과 관행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팽창과 관련이 깊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중국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인진라이(引進來)’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 노동착취공장(sweatshop)의 열악한 상황이 보도되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서구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촉발됐다.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공급망에 속한 전 세계 하청공장에 행동강령을 도입하고 CSR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노동조건 준수를 중심으로 CSR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적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CSR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형식적 수용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Pun, 2008).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도입된 CSR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확산 단계에 접어든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빈부 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조화사회 건설’ 정책 발표 이후 CSR의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됐고, 같은 해 회사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기업은 정부 및 사회의 감독 하에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8년에는 ‘사회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 공기업들에 대한 지시 의견’이 채택되면서,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가 공식화되었다(이관승·정선욱, 2011; Ho, 2013; Backer, 2014; Zhao, 2014; 남영숙, 2015).

2000년대 중반 이후 마텔(Mattel)사 바비인형 리콜사태, 사천성 대지진 이후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소극적 기부 행태, 멜라닌 분유 파동 등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촉발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CSR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0년 들어 외자기업인 폭스콘(Foxconn)과 난하이 혼다(Nanhai Honda)의 노동 쟁의가 이례적인 관심을 끌면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노동자 보호 및 작업장 안전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중국의 세계 경제로의 편입이 본격화된 것도 중국에서 CSR 개념이 확산된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1년 WTO 가입 이후 환경 및 노동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국내 수용 압력이 강해졌다(Sum and Ngai, 2005; Yu, 2008).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CSR을 리스크 관리의 수단으로써 인식하기 시작한 점도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했다(정상은, 2007; Zhao, 2014; 정한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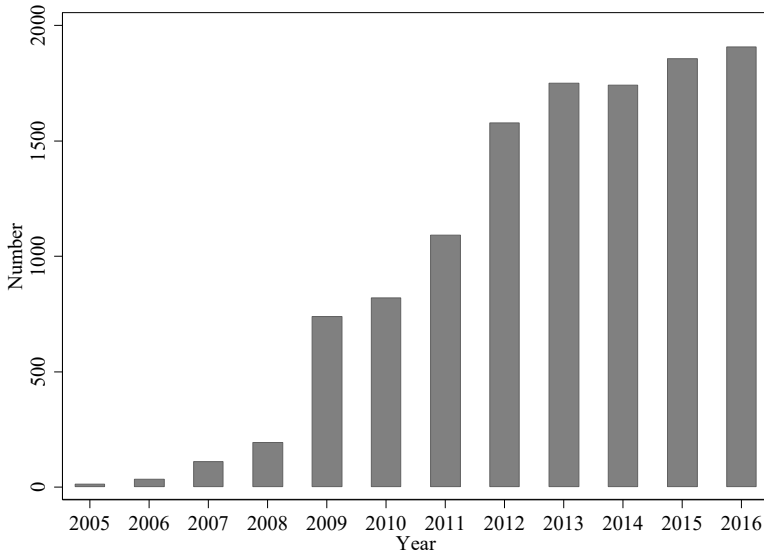
중국에서 CSR 관행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당-국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정부는 CSR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2008년 개설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기업사회책임연구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고 지침(CASS-CSR)을 만들었고, 이 기준에 따라 매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하고 기업 유형별 순위를 공개했다. 2016년에는 중국 표준화연구원 주도로 CSR 및 CSR 보고에 대한 국가표준(GB/T 36000 및 36001)이 만들어졌다.

산업계 역시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에 대해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05년 중국의류방직협회는 중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류방직업계의 사회적 책임 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Heiduk and McCaleb, 2013). 2008년에는 중국의 11개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다(Lin, 2010).

이처럼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과 관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중국기업의 수가 불과 10여 년 만에 2,000여 개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국 CSR의 빠른 확산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

<Figure 1>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in China



Note: It excludes 9 Sustainability reports from 2001 to 2004.

Source: GoldenBee(2017).

1) 기업 외에 협회, 대학 등 모든 유형의 조직을 포함한 연간 발간 수치는 이미 3,000건을 넘어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수년간 80여 개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서의 CSR 규범의 신속한 제도화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Ⅲ. 중국에서의 CSR 관행의 발전

국제규범의 확산(diffusion) 과정은 크게 도입(acceptance) 및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 이행(implementation)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국제인권 규범의 전 세계적 확산이 개별 국가에서의 인권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국제인권 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인권 관행 개선과는 괴리(decoupling)가 있었던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례들을 통해 규범 확산 과정에서의 단계 구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Hafner-Burton, Tsutsui, and Meyer, 2008; Cole, 2012).

CSR 역시 국제규범의 성격이 강하므로 유사한 방식의 단계 구분이 가능하다. 곤도와 아미스는 기업이 새로운 관행을 수용(adoptio)하는 과정을 도입과 이행으로 구분하고, 관행 확산 과정에서의 담론을 분석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관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므로 담론은 추상적개념적이며, 유사성을 강조하는 반면,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식 제고 단계의 담론은 구체적실용적이며 차이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Gondo and Amis, 2013: 238).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공시 내용과 성과의 괴리(disclosure-performance gap)”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CSR 규범 도입 및 제도화가 반드시 실제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Lyon and Maxwell, 2011; Noronha and Wang, 2014). 그간 국제적인 경영 관행의 수용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됐지만, 기업이 해당 관행을 상황에 맞게 이행하고 적응(adaptation)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Ansari, Reinecke, and Spaan, 2014).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CSR 확산 추이를 도입 및 제도화 단계와 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90년대에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으로 인해 중국 하청기업들이 행동강령을 도입한 것을 도입 및 제도화로 본다면, 강령 채택을 작업장 내 근로조건 개선의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 것은 이행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시한 CSR 규범 도입이 가속화된 한편,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CSR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입과 제도화 단계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경영진의 CSR 중요성 인식 연구(Zuo, Schwartz, and Wu, 2017), CSR 보고서 발간 여부 및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Marquis and Qian, 2013; Wang et al. 2018), 국내의 보고 기준 채택(张俊瑞汪方军王鹏, 2010; 叶陈云叶陈毅姜玲玲, 2019; 钟马徐光华, 2019) 및 제삼자 검증 여부(Liao et al. 2018)를 종속변수로 삼은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제도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측정 및 변수화가 쉬우므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SR 이행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이어졌다. 다국적기업 중국 하청공장에서의 행동강령 채택이 실제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Sum and Ngai, 2005; Yu, 2008), 기부금 규모를 통해 살펴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요인 연구(Li, Song, and Wu, 2015; 唐跃军左晶晶李汇东, 2014)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중국기업의 CSR 이행 방식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이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해당 지표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CSMAR 자료(Sial, Zheng, Khuong, Khan, and Usman, 2018), 중국사회과학원 평가 결과(이주영, 2015), 남방주말(南方周末) 평가 결과(Kao, Yeh, Wang, and Fung, 2018), Runlin Global Rankings 평점(RKS)(Marquis and Qian, 2013; Lau et al. 2016; Hao, Qi, and Wang, 2018) 등을 CSR 이행 수준 종속변수로 도입한 실증 연구 사례가 있다.²⁾ 해당 연구들은 CSR 이행 측면을 다룬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 하지만, 분석 대상 기업의 범위나 평가 방식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³⁾

본 연구는 기존의 ‘확산’ 연구와는 달리 CSR ‘이행 수준’에 주목한다. 상해 및 심천거래소 상장기업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중국기업들의 전반적인 CSR 이행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매체 허쉬왕의 상장기업 사회적 책임 보고서 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기업 간 CSR 이행 수준의 차이를 파악했다.

허쉬왕은 1996년 처음 만들어졌고, 중국 상장기업 재무정보 제공 사이트 가운데

2) 언급된 중국의 CSR 평가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5장에 제시했다.

3) 2016년 북경대학교 광화관리학원에서 발표한 ‘중국기업 지속가능성지수’의 경우 상해 및 심천거래소 상장기업 전체가 평가 대상이고, 1,000대 기업에 대한 평가자료가 발표되었다. 향후 평가자료가 축적되면 개별 기업의 CSR 이행 수준에 대한 종속변수로 활용가능하다(Guanghua-Yintai Center for Philanthropy and Social Impact, 2017). 최근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중국 CSR의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839개 기업이 진행한 34,000여건의 CSR 사업을 검토한 연구 사례가 대표적이다(Li, Khalili, and Cheng, 2019).

접속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Xiong, Lu, Skitmore, Chau, and Ye, 2016: 227). 허선왕은 2010년부터 상장기업 CSR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발간한 각종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된다. 정량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정성지표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이분 변수 형태로 확인한다. 평가지표는 주주, 임직원, 공급자고객·소비자,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그리고 각 대주제는 13개의 소주제와 3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지표 구성은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주주책임(30%), 임직원책임(15%), 공급자고객·소비자 책임(15%), 환경책임(20%), 사회책임(20%)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⁴⁾ 기업별 평가 등급은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80~100점은 A등급, 60~80점 B등급, 40~60점 C등급, 20~40점 D등급, 20점 이하는 E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⁵⁾

허선왕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Table 1>에 소비재 업종 기업 가운데 CSR 이행 수준이 높은 푸야오유리, 중간 수준 랜드윈드, 낮은 기업인 BAIC의 2016년 평가 결과를 비교했다.⁶⁾ 주주책임 항목은 계량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푸야오유리는 수익, 배당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BAIC는 수익 항목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다. 임직원책임 항목 안전 지표의 경우 푸야오유리는 안전검사 및 교육을 모두 실시한 반면, 랜드윈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사회책임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이익 중 소득세 납부 비율은 푸야오유리 약 20%, 랜드윈드 약 11%였던 반면, BAIC는 수익을 내지 못했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동일한 기준에 따라 CSR 이행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점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4) 허선왕 평가는 지표별 가중치를 활용해서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데, 소비재 업종은 임직원책임(10%), 공급자고객·소비자 책임(20%)을 적용한다. 제조업종은 환경책임(30%), 사회책임(10%)을 반영하는 반면, 서비스업종 기업은 환경책임(10%), 사회책임(30%)을 적용해서 종합점수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있다.

5) 허선왕 상장기업 사회적 책임 평가 전체 지표는 <Appendix 1>에 제시했다.

6) 푸야오유리는 1987년에 설립된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이고, 랜드윈드는 1993년에 설립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BAIC(BluePark New Energy)는 1992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다.

〈Table 1〉 Examples of Hexunwang's CSR Rating
(Consumer Goods Sector)

Stakeholder	Subject	Fuyao Glass (2016)	Landwind (2016)	BAIC (2016)
Stockholder (30%)	Revenue (10%)	10.00	6.35	-7.69
	Debt Repayment (3%)	1.61	1.77	1.65
	Allocation (8%)	8.00	5.85	0.00
	Punishment (5%)	5.00	5.00	5.00
	Innovation (4%)	1.00	1.56	0.00
Employee (10%)	Accomplishment (4%)	3.26	3.35	2.19
	Safety (3%)	3.00	2.00	0.00
	Employee Care (3%)	3.00	2.00	0.00
Supplier and Customer (20%)	Quality Management (9%)	9.00	7.00	0.00
	Warranty (4%)	4.00	4.00	0.00
	Credit (7%)	5.00	7.00	0.00
Environment (20%)	Environmental Governance (20%)	15.00	9.00	0.00
Society (20%)	Contribution Value (20%)	13.58	3.94	-15.00
Total (Grade)		81.45(A)	58.82(C)	-13.86(E)

Source: Hexunwang(2017).

IV. 이론 및 가설

CSR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조정의 수단으로 부상한 이후, CSR 이행 동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관련 연구들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출처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조한 연구와 국가의 정치적 신호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중요한 이유는 CSR은 일종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정당성의 측면에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중국기업 역시 활동 반경을 전 세계로 확장했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문화적·규범적 압력을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고려하기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을 활용해서 글로벌 수준의 요인들이 중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친 영향을 확인했다.

신제도주의이론은 기업의 행위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제하므로, 기

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도 달라진다. 기업의 제도적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기업 활동 범위의 전 세계적 확장으로, UN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와 같은 글로벌 CSR 프레임워크가 확산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와 관계가 깊다.

신제도주의이론 및 신제도주의에서 파생된 세계사회이론은 이런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사회이론은 세계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국민국가에 미친 영향을 동형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여 의미 있는 이론적 기여를 했고(Meyer, 2000), 연구 대상도 국가에서 도시(Ilgen, 2003), 시민사회단체(Frank, Longhofer, and Schofer, 2007), 대학(Drori, Delmestri, and Oberg, 2013)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사회이론을 기업에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CSR 규범과 관행의 전 세계적 확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CSR 확산 요인을 글로벌 제도 압력, 지역적 수용성(receptivity), 해외 경제 침투 및 국내 경제 시스템으로 구분한 림과 추추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Lim and Tsutsui, 2012).

중국 CSR에 신제도주의이론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한 연구는 기업 문화 및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과 함께 글로벌리제이션의 압력, 정치적 배태성, 규범적인 사회 압력 등이 중국 CSR 이행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Yin, 2017). 그러나 이 연구는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중국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관행을 수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Lau et al. 2016),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내적 맥락의 제도적 압력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마퀴스 등의 연구는 국내외의 압력을 함께 살펴본 드문 사례인데,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 중국국가전력망공사(State Grid) 두 기업에 대한 비교 연구에 그쳐, 결론을 전체 중국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Marquis, Yin, and Yang, 2017).

한편 이해관계자이론은 CSR 이행 동기를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Kassinis and Vafeas, 2006). 국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아왔다(Aguilera, Rupp, Williams, and Ganapathi, 2007). CSR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보완할 수 있고, 정책 정당화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Dentchev, Haezendonck, and van Balen, 2017).

CSR 이행에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지지, 촉진, 공조, 강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지지는 공공조달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CSR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촉진은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같은 CSR 이행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공조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CSR 관련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고, 강제는 CSR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Fox, Ward, and Howard, 2002; 안영환, 2007; 남영숙, 2015). 정부 정책이 기업이 CSR 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Heiduk and McCaleb, 2013), CSR은 기업이 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CSR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 대상 연구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Gond, Kang, and Moon, 2011; Ho, 2013).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해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 CSR은 조화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되었다(王亮赵定涛, 2006; 宋迎法吴晓兰, 2012). 따라서 국가-기업 관계의 맥락에서 중국 CSR 이행 동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가 적극적인 CSR 이행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국가의 기업에 대한 ‘정치적 신호(political signaling)’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 신호란 국가의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는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제도적 영향력이 작동하는 유형의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신호에 반응할 것이라는 예측과(Wang et al. 2018), 중국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기업이 정치적 신호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공존한다(Guo et al. 2018). 한편 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치적 신호의 실행 속도를 늦추는(buffering) 기업의 사례도 발견된다(Marquis and Qian 2013; Zhang, Marquis, and Qiao, 2016).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거쳐 ‘세계사회의 압력’과 ‘국가-기업 관계(정치적 신호)’를 중국 상장기업들의 CSR 이행 수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쟁 가설로 설정했다. 세계사회의 압력과 관련된 가설로 먼저 고위 경영진의 해외 경험이 CSR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CSR은 서구에서 발전한 규범이기 때문에, 해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국제규범 및 관행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장기업 259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사회 구성원들의 해외 경험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iao, Park, Choe, and Baik, 2018).

다음으로 모방적 동형화를 측정하기 위해 보아오포럼(Boao Forum) 가입 여부를 고려했다. 세계회의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국제규범을 확산시키는 장으로 인식되어왔다(구정우, 2007). 중국에서 열리는 CSR과 관련이 깊은 대규모 국제회의에는 보아오포럼이 있다. 보아오포럼은 2001년 창설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흔히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매년 4월 열리는 포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기업인들이 참석하고, CSR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포럼 가입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모방적 동형화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아오포럼에 가입한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CSR을 이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한편 수출 업종 여부 및 해외투자 규모는 CSR 이행을 촉진하는 해외에서의 압력과 관련이 있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해외투자 규모가 큰 기업은 국제적 유행과 추세에 민감하고, 해외 시장 및 공급망 차원의 압력에 더 민감하므로 CSR과 같은 의제를 기업 경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해외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규범이나 혁신 역량이 전파될 여지도 크다.⁷⁾ 기존 연구들도 내수 및 수출 업종을 구분해서 CSR 이행 수준을 비교하거나(Yin, 2017),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의 비율을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Cheung, Kong, Tan, and Wang, 2015). 따라서 수출 업종 기업이 내수 기업에 비해, 해외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CSR 이행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1: (a) 해외 유학 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b) 보아오포럼에 가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c) 수출 업종 기업이 내수 기업에 비해, (d) 해외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기업 관계(정치적 신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상해 및 심천거래소 상장기업들은 소유 주체에 따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는 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 내 당조직

7)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오히려 국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지만(Yin, 2017), 이 가설을 중국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Jones and Zou, 2017). 중국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층 단위에는 당조직을 설립해야 하고, 기업법에도 당조직의 역할이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이 본 기업에서 관철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하고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남주, 2011: 50; Wang, 2014). 따라서 국유기업에서는 이사회와 당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당관간부(黨管幹部; 당은 기업의 간부를 관리한다)’의 원칙 아래 당정이 국유기업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행사하기 어렵다(이상운, 2017: 157; 이상빈·이상운, 2017: 97). 특히 중앙국유기업의 경우 당, 정부, 기업 간의 순환 인사가 빈번하므로 기업에 미치는 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이종철·강승호, 2012: 51).

중국에서는 민영기업 역시 국가의 압력에 취약하므로 국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李嵐, 2013). 민영기업에도 당 간부 출신의 인사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당조직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Dickson, 2008; Chen and Dickson, 2010; Huang and Chen, 2016; 정중호·윤태희, 2016). 그러나 CSR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국유기업들이 민영기업에 비해 더 큰 이행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 내 당 조직, 인사권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국가가 기업에 대해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는 구속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가 소유 지분 비율은 총 주식 중 국가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의미하고,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국가의 주요 정책인 CSR 이행에 더 적극적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가 소유 지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 적극적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업이 CSR 이행과 관련해서 받게 되는 압력의 창구로 국가와의 인적 연계에 주목하고, 그 층위를 중앙 및 지방 수준으로 구분해서 국가-기업 관계의 복잡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지방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CSR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단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상충되는 요구에 주목한 예외적인 연구 사례가 있지만, 보고서 발간 여부 및 보고의 질적 수준 등 CSR의 도입 및 제도화 측면에서만 문제에 접근한 한계가 있다(Luo, Wang, and Zhang, 2017).

중국의 중앙과 지방은 상호 제약적 측면과 지향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복

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김남이, 2008; 이재영, 2016).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 차원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성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고 있다. 가령, 중앙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의 소형차 생산 확대를 촉구했지만, 지방 정부들은 지역 기업들의 대형차 생산을 권장했다는 연구 결과는 중앙·지방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보여준다(Kolk and Tsang, 2017). 중앙과 지방은 정치·경제적 여건, 핵심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보는 관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Wang, 2017).⁸⁾

기업은 국가와의 인적 연계를 활용해서 정책 이행 요구에 대응하기도 한다. CSR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의 경우 어떤 수준의 인적 연계인지에 따라 해당 정책의 이행을 촉진할 수도 완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연계의 층위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중앙 수준의 연계는 CSR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 수준의 연계는 오히려 국가의 CSR 이행 요구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 (a) 국영기업이 민영기업에 비해, (b) 국가소유 지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c) 중앙 정부와의 인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적일 것이지만, (d) 지방 정부와의 인적 연계가 강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극적일 것이다.

V.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상해 및 심천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0년 6월 기준 상해거래소에는 1,600여 개, 심천거래소에는 2,200여 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상장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의 장점은 모두 1,800여만 개로 추산되는 중국

8) 중앙정부와의 인적 연계가 CSR을 추동하는 메커니즘을 신제도주의의 억압적 동형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중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CSR을 추진하고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맥락에서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는 해석이다. 규범과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국가행위자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경쟁국가적 시각(Skocpol, 1979; Tilly, 1992)의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인적 연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점을 지적해준 『한국사회학』의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기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고, 공시되어 있는 재무데이터와 결합해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알리바바(Alibaba), 샤오미(Xiaomi)와 같은 해외 상장기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중국 CSR의 전반적 동인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해 및 심천 거래소 상장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상장기업 가운데, 특별처리 기업, 거래제한 기업, 퇴출 위험 기업 등 관리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성격이 이질적인 금융업종 기업, 누락 변수가 많은 기업, 연구 종료 시점 이전에 상장 폐지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2,506개의 기업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준엽, 2007; Huang and Zhao, 2016). 모집단에는 2010년 이후에 상장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균형(unbalanced) 패널 자료이다. 모든 자료는 1년 단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시간 갭(gap)은 없다.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2,506개 기업의 14,497건의 연도-기업 정보가 통계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변수는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다. CSR 연구 초기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을 분석해서 연구자들이 직접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연구 결과의 비교 및 반복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으므로 점차 제3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CSR 평가지표를 연구에 활용하는 추세이다(Zhong et al. 2019).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CSMAR에서도 CSR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기업이 GRI 보고 기준을 준수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는지, 보고 내용에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했는지,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사회-공공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했는지, 사회적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했는지, 안전한 생산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분 변수의 형태로만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별 이행 수준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도 기업은 사회, 환경, 시장과 관련된 책임을 이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매년 유형별 300대 기업의 평가 순위 및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商道纵横, 2015). 중국사회과학원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인 평가로 볼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의 평가 결과만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간지 남방주말에서도 산하 중국 CSR연구소(中国企业社会责任研究中心)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2003년부터 외자기

업(세계 500대 기업),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 기업 유형별 CSR 평가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Kao et al. 2018; 南方周末, 2019). 그러나 성적이 우수한 일부 기업들의 평가 결과만 발표되므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⁹⁾

따라서 학계에서는 Runlin Global의 Rankings 평점(RKS)과 허쉬왕 평가자료를 중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평가지표로 널리 활용해왔다. 두 평가의 차이는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허쉬왕 평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뿐만 아니라 연간보고서도 평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상장기업이 평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허쉬왕 평가지표는 CSR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고 있고, 평가 프레임워크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의 평가 결과 전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중국 CSR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허쉬왕 평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Xiong et al. 2016; Ning, Hao, Liu, and Liu, 2019; An, 2020). 반면, RK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 평가자료로 활용하므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상장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두 평가를 비교한 결과, RKS는 CSR 보고 품질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고, 허쉬왕 평가는 CSR 이행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Zhong et al. 2019). 본 연구의 목표는 중국기업들의 CSR 이행 동인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허쉬왕 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물론 허쉬왕 평가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기업의 보고 내용이 실제 CSR 이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표의 수가 불충분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SR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구성의 문제도 발견된다. 가령, 사회책임 항목의 세부지표는 이윤총액 중 소득세율과 공익기부금액 두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CSR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항목은 누락되어 있다. 임직원책임 항목 역시 성과, 안전, 직원 배려 관련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베푸는 시혜적 관점의 CSR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아울러 세부지표 및 연도별 점수 분포에 편차가 있는데, 특히 2017년 이후 평가 점수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두드러

9) SynTao(商道纵横), Golden Bee(金蜜蜂) 등의 중국의 주요 CSR 컨설팅 업체들이 발표하는 자료는 기업 컨설팅을 위한 자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배제했다.

10) 반면 환경책임의 경우 해당 기업의 환경거버넌스를 환경보호의식, 환경관리체계인증, 환경보호 투자액, 오염배출상품수, 에너지절약상품수 등의 구체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표 구성방식에는 국제기준과 다른 이른바 ‘중국 특색 CSR’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만 활용했고, 종합점수를 5단계 등급으로 변환해서 종속변수로 가공했다.¹¹⁾

<Table 2> Distribution of Hexunwang's CSR Grades from 2010 to 2016

Grad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	1	13	25	15	5	12	14
B	146	287	385	471	82	174	318
C	363	266	215	142	63	90	204
D	1,853	2,039	2,155	2,439	3,261	3,115	2,890
E	27	55	66	73	94	130	93
Total	2,390	2,660	2,846	3,140	3,505	3,521	3,519

Source: Hexunwang(2017).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수 가운데 상당수는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SMAR에서 제공하는 세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가공해서 획득했다. CSMAR은 홍콩의 폴리테크닉대학 중국회계금융연구소가 기업들의 공시 내용을 취합해서 구축한 것이다(유혼강영삼이근, 2007). 여기에 몇몇 지표들을 추가로 집적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가령, 보아오포럼 가입 여부는 홈페이지의 회원 목록을 확인해서 직접 코딩했고, 해외투자 변수는 ‘중국 글로벌 투자 추적(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DB’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수출 업종 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변수 소개에 포함시켰다. 엄밀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쳤는데, 누락 정보가 많은 기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고, 소수의 결측값은 직전 연도 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의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제도주의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 가운데 최고경영진의 해외 경험 변수는 이사회에 해외 유학 또는 취업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파악했다. CSMAR은 회장, 최고경영자, 총재, 부총재, 부회장, 이사회장 등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포함되는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별 내역을 연도-기업 단위로 취합해서 최고경영진 해외 경험 변수를 구축했다.

11) 아울러 각 기업의 연도별 점수를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한 결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해서 패널 회귀모형(GLS regression model) 분석을 시도했다. 패널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정치적 신호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인적 연계가 중국 CSR 이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논문에는 독자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종속변수 가공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덜할 것으로 판단되는 패널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만을 제시했다.

보아오포럼 변수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입 기업 목록을 참고해서 정리했다. 수출 업종 여부는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금액이 가장 많은 열 개의 제품을 활용해서 파악했다.¹²⁾ 이 상품들과 중국산업표준분류를 비교해서 수출산업 여부를 판단했다. 해외투자 변수는 해당 연도까지의 기업의 해외투자 누적액을 확인했다.

국가-기업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 가운데, 기업 유형은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으로 기업들을 분류해서 국유기업에 1의 값을 부여했다.¹³⁾ 국가 소유 주식 비율은 해당 기업의 전체 주식 가운데 국가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파악해서 변수화했다. 국가-기업 관계에서의 인적 연계는 해당 기업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주요 기구의 전현직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변수화했다.¹⁴⁾ 중앙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당 중앙조직, 국무원, 전국인대 출신 인사의 이사회 포함 여부를 포함했고, 지방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당 지방조직, 지방정부 출신 인사의 이사회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방식은 국가와 기업의 인적 연계를 중앙 및 지방 각급 단위로 구분해서 평가한 연구(Wu, Tang, and Zhang, 2014)와 주요 기관별 연계 방식을 비교한 연구(Wang, 2017)를 참고해서 발전시킨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정치적 연계를 변수로 도입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최고경영자 개인 차원의 국가와의 연계 여부(Zhang et al. 2016) 및 이사회 구성원들과 국가와의 연계 여부(Huang and Zhao, 2016)를 이분 변수로 만들어서 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는 이사회 구성원 전체의 국가와의 인적 연계를 중앙, 지방으로 구분해서 보다 정확하고 다층적으로 국가-기업의 연계 양상을 파악했다.¹⁵⁾ 따라서 국가와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12) 전자기기 및 제품,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류, 가구류, 의류, 니트 및 뜨개질을 제외한 의류, 광학 및 의학기기, 차량, 철강제품, 신발 등이 중국의 10대 수출제품에 포함된다(Workman, 2020).

13) 중국의 국유기업은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The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SASAC)에서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 재정부 및 국무원 기타 부처 소속의 중앙부처 관리기업, 지방정부(상·시·현 정부) 소속의 지방국유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국유기업은 국방, 전력, 석유 및 석유화학, 통신, 석탄, 민간항공, 해운 등 중국의 7개 전략산업 및 기계, 자동차, 정보기술, 건설, 철강 및 비철 금속 등의 중점산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IEP, 2014; 이종철, 2015). 중앙국유기업은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뉴욕, 런던거래소 등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

14) 당 대회, 전국인대, 정협 등 중국의 주요 기구에는 기업인들의 참여가 활발한데, 11차 전국인대(2008~2013)에는 22명, 17차 당 대회(2007~2012)에는 47명의 중앙국유기업 임원이 기업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이종철·강승호, 2012: 58). 서구 국가 대상 연구에서는 고위 경영진과 정부의 인적 연계뿐만 아니라, 기업 간 인적 연계도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지만(Peng and Luo, 2000), 중국에서는 기업 간 연계도 결국 국가-기업 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는 해당 변수를 활용하지 않았다.

15) 기존 연구들과 같이 이분 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했을 때도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영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관계에 주목해왔는데, 양자 사이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입장이 여유자원이론(slack resource theory)이다(McGuire, Schneeweis, and Branch, 1990). 통제변수 가운데 자산 및 총자산이익률 변수는 여유자원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자산총계는 기업의 연도 말 시점의 자산 규모를 의미한다. 표준분포와 유사하게 변형하기 위해서 로그값을 취해서 분석에 활용했다. 총자산이익률 변수는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을 의미하며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할 때 활용되는 지표이다. 한편 기업연령은 기업의 창립연도 정보를 활용해서 계산했다.

그리고 업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업종 더미 변수를 추가했다. 동종업계의 규제 등 CSR 이행을 권장하는 제도 환경 속에 있는 기업이 CSR 이행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ampbell, 2007). 불확실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은 주로 동종업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동종업계 소속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Marquis and Tilcsik, 2016). 상장기업 산업분류 코드 대부분을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난방·가스·수자원 공급, 건설업, 유통업, 교통 및 운송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기타로 구분했고, 빈도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다른 산업의 값을 비교했다.

한편 중국 국내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서 지역 더미 변수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정 처리를 위한 7대 지역(화북, 화남, 화중, 화동, 동북, 북서, 남서지역) 구분이 아닌, 4대 경제지역(동부연안, 동북부, 중부, 서부) 구분 방식을 택했다(이종찬·윤관진·제상형, 2018). 연구 대상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연안 지역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을 비교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시차(time lag)는 2년 반영했다. 종속변수인 2016년 CSR 평가 결과는 2015년의 이행실적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므로, 2014년의 독립변수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선후 관계의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독립변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종속변수가 5등급으로 구분돼 서수적 비교가 가능한 범주이므로 패널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분석 모형으로 선택했다.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자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종속변수의 연도별 분포의 편차를 교정하고자 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E등급은 0점, D등급은 1점, C등급은 2점, B등급은 3점, A등

급은 4점을 부여했다. 이 모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i 는 개별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 y_{it}^* 는 네 개의 경계값(cutoff point) $\kappa_1, \kappa_2, \kappa_3, \kappa_4$ 를 기준으로 5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오차항 ϵ_{it} 는 평균 0, 분산 $\frac{\pi^2}{3}$ 의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데, ν_i 와는 독립적이므로 임의효과(random-effects) 모형에 해당한다(StataCorp, 2013; 임혜정, 2017; 서미숙성효용, 2018).

$$y_{it}^* = x_{it}\beta + \nu_i + \epsilon_{it}$$

$$\begin{aligned} y_{it} &= 0 (E \text{ 등급}) && \text{if } y_{it}^* \leq \kappa_1 \\ y_{it} &= 1 (D \text{ 등급}) && \text{if } \kappa_1 < y_{it}^* \leq \kappa_2 \\ y_{it} &= 2 (C \text{ 등급}) && \text{if } \kappa_2 < y_{it}^* \leq \kappa_3 \\ y_{it} &= 3 (B \text{ 등급}) && \text{if } \kappa_3 < y_{it}^* \leq \kappa_4 \\ y_{it} &= 4 (A \text{ 등급}) && \text{if } \kappa_4 < y_{it}^* \end{aligned}$$

만약 패널 구조를 무시하고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활용한다면, 오차항 기댓값과 상관관계, 동분산성(homoskedasticity),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 설명변수의 외생성(exogeneity) 등의 가정이 어긋나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0).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은 분석 단위 간 차이를 무시하고 분석 단위 내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있고, 시간 불변(time-invariant) 변수의 계수를 추정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립변수 가운데 기업 유형, 수출기업 여부, 업종, 지역 등 시간 불변 변수의 비중이 높으므로 임의 효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Wooldridge, 2016; 석준화·이유석·고사랑·김병도, 2017). 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초통계는 아래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 Variables

Theory	Variables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Hexunwang's CSR grades	A (4), B (3), C (2), D (1), E (0)
Neo-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experience (d)	Overseas work or study experience of board members (1)
	Boao forum membership (d)	Boao forum membership (1)
	Export industry (d)	Top ten exports industries (1)
	Foreign investment (log)	Cumulative amounts of investment overseas
Political Embeddedness	SOEs (d)	State-owned enterprises (1)
	State-owned stock ratio	The proportion of state-owned stocks
	Political ties (central)	Board members with the Party, government, and NPC membership at the central level
	Political ties (local)	Board members with the Party, government membership at the local level
Control Variables	Assets (log)	Amount of total assets
	ROA	Return on assets
	Age	Number of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Industry sectors	Mining, Manufacturing (reference), Utilities, Construction, Distribution, Transportation, ICT, Real estate, Others
	Areas	East coast (reference), Northeast, Central, West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Theory	Variables	Mean	Std. Dev.	Min	Max
Dependent Variable	Hexunwang's CSR grades	1.26	0.69	0	4
Neo-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experience (d)	0.42	0.49	0	1
	Boao forum membership (d)	0.01	0.08	0	1
	Export industry (d)	0.33	0.47	0	1
	Foreign investment (log)	0.57	3.39	0	24.87
Political Embeddedness	SOEs (d)	0.41	0.49	0	1
	State-owned stock ratio	0.06	0.15	0	0.92
	Political ties (central)	0.33	0.50	0	3
	Political ties (local)	0.39	0.59	0	2
Control Variables	Assets (log)	21.81	1.36	10.84	28.51
	ROA	0.05	0.87	-8.46	108.37
	Age	14.93	5.39	1	38
Industry Sectors	Mining	0.03	0.16	0	1
	Manufacturing	0.61	0.49	0	1
	Utilities	0.04	0.20	0	1
	Construction	0.03	0.16	0	1
	Distribution	0.06	0.24	0	1
	Transportation	0.04	0.19	0	1
	ICT	0.06	0.23	0	1
	Real Estate	0.05	0.23	0	1
	Others	0.08	0.27	0	1
Areas	East Coast	0.74	0.44	0	1
	Northeast	0.05	0.22	0	1
	Central	0.09	0.28	0	1
	West	0.12	0.33	0	1

VI. 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도출된 가설들을 임의효과 패널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했다. <Model 1>에는 신제도주의이론 변수와 통제변수만 포함해서 국가-기업 관계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살펴보고, <Model 2>에는 모든 변수를 포함했다.

신제도주의 관련 변수 가운데는 동형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보아오포럼 가입 여부 변수만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최고경영진 해외 경험 변수, 글로벌 수준의 CSR 이행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출 업종 및 해외투자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신제도주의 관련 변수, 특히 글로벌 수준의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중국에서 CSR이 도입되고 제도화된 과정과 관련이 깊다. 중국에서는 국제규범으로서의 CSR이 국가의 강력한 개입 과정을 거쳐 재해석되고 변형되면서, 환경적 측면 및 정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 및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축소한 중국 특색 CSR이 정착되었다. 앞서 각주 10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에도 이와 같은 특성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글로벌 수준의 영향 변수가 강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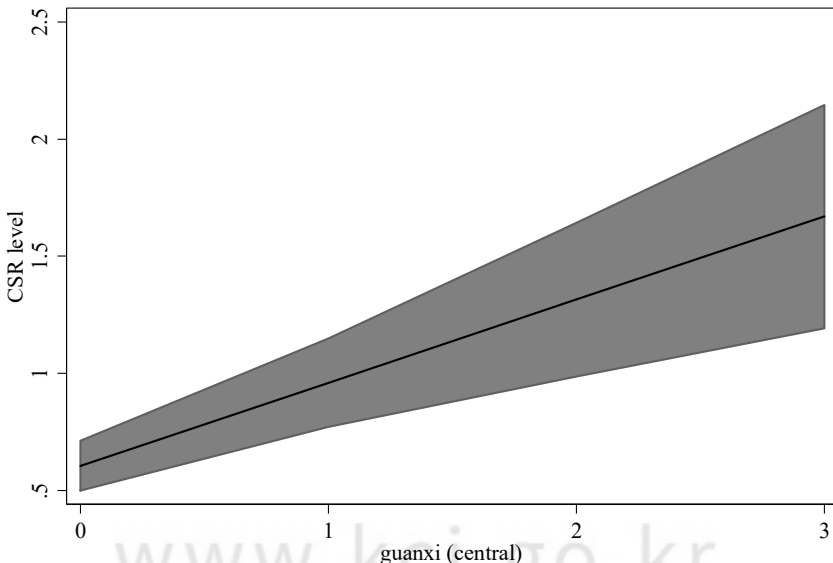
글로벌 요인의 영향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기업들의 CSR 국제 기준 채택 비율이 저조한 이유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강대국의 오만’으로 설명한 연구도 발표되었다(임석준·모리나, 2019). 그러나 중국기업들은 단기간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학습하고 관행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평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보고서 발간 기준 채택 등 도입 및 제도화 측면이 아닌 CSR 이행 수준을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허쉬왕 평가지표가 국내에서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중국기업들의 국내, 해외 CSR 이행 수준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글로벌 변수들의 유의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업 관계 가설들은 전반적으로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국유기업이 민영기업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소유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지배 구조의 관점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기업들은 국가 주요 정책인 CSR 이행에 더 적극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합치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국가와 기업의 인적 연계를 중앙 및 지방 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중앙과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양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반면, 지방과의 연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과의 인적 연계가 CSR 이행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아래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중앙과의 인적 연계가 없는 기업의 CSR 이행 평가 점수는 0.61점, 한 가지 유형의 인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0.96점, 두 가지 유형의 인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1.31점, 세 가지 유형 모두의 인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1.67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CSR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발전해 온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인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CSR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지만, 지방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CSR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2> Marginal Effects of the Political Ties at the Central Level



통제변수 가운데 여유자원이론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 적극적이었다. 총자산이익률로 측정된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 평가 점수가 높았다. 반면 기업연령 변수는 가설의 예측과는 반대로 역사가 짧은 기업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인 것과 관련이 있다. 역사가 긴 기업들은 제도적 관성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변화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역사가 짧은 기업들은 재빨리 새로운 규범에 적응한 결과로 예측된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한 산업 더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수도전기가스업, 운송업, 부동산업, <Model 2>에서는 부동산업이 비교 기준인 제조업에 비해 CSR 이행 평가 점수가 높았다. 해당 업종은 국가 정책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CSR 이행을 요구하는 국가의 정치적 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더미는 비교 준거인 동부 연안 지역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동북 및 서부 지역 기업들의 CSR 이행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CSR 이행 수준의 차이는 흥미로운 후속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동부 연안 지역 내부의 이질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able 5〉 Results of Random-effects Panel Ordered Logit Analysis

Theory	Variable	Model 1 Coef.	Model 2 Coef.	
Neo-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experience (d)	-0.02 (0.08)	0.04 (0.08)	
	Boao forum (d)	1.20 ⁺ (0.64)	1.08 ⁺ (0.64)	
	Export industry (d)	-0.07 (0.14)	0.02 (0.14)	
	Foreign investment (log)	0.00 (0.01)	0.00 (.01)	
	SOEs (d)		0.85 ^{***} (0.13)	
Political Embeddedness	State-owned stock ratio		0.93 ^{***} (0.18)	
	Political ties (central)		0.23 ^{**} (0.08)	
	Political ties (local)		-0.00 (0.06)	
	Assets (log)	0.55 ^{***} (0.04)	0.46 ^{***} (0.04)	
	ROA	0.08 ^{***} (0.02)	0.08 ^{**} (0.02)	
	Age	-0.10 ^{***} (0.01)	-0.09 ^{***} (0.01)	
Control Variables	Mining	0.47 (0.34)	0.31 (0.34)	
		Utilities	0.55 ⁺ (0.29)	0.27 (0.29)
	Construction	-0.01 (0.34)	-0.02 (0.34)	
		Distribution	0.13 (0.25)	-0.00 (0.25)
	Transportation	0.75 [*] (0.30)	0.47 (0.30)	
		ICT	0.06 (0.25)	0.20 (0.25)
	Real Estate	0.56 [*] (0.26)	0.52 [*] (0.26)	
		Others	-0.17 (0.22)	-0.19 (0.22)
	Areas (Reference: East Coast)	Northeast	-0.52 [*] (0.25)	-0.55 [*] (0.25)
		Central	0.05 (0.20)	-0.05 (0.19)
		West	-0.22 (0.17)	-0.34 [*] (0.17)
		Wald χ^2	349.74	443.52
		Log likelihood	-8887.75	-8837.74
		Number of Companies	2,506	2,506
	Number of Observations	14,497	14,497	

Not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1, *p<.05, **p<.01, ***p<.001.

<Table 6>에는 모형적합도(goodness-of-fit) 비교 결과를 제시했다. 모형 1에는 통제변수 및 신제도주의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고, 모형 2에는 국가-기업관계 변수를 포함한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했다. 모형 1과 비교하면 모형 2의 로그 우도(Log Likelihood, LL), 아카이케 정보 기준(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베이지스 정보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값이 모두 감소하므로 모형 적합도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Model Fitting Information

Model	N	LL(model)	df	AIC	BIC
1	14,497	-8887.749	23	17821.50	17995.88
2	14,497	-8837.742	27	17729.48	17934.19

VII.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동인을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가-기업 관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신제도주의와 관련된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분명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국가-기업 관계 변수 가운데 소유구조 및 중앙 수준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했지만, 지방 수준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산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으며 역사가 짧은 기업의 CSR 이행 수준이 높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국가-기업 관계, 특히 중앙 수준의 인적 연계와 기업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국가의 기업에 대한 정치적 신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기존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다양한 정치적 신호가 낳는 이질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중앙과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했지만, 지방과의 인적 연계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치적 신호의 역동성과 그 효과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합적 이해관계에 관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했고 경제지표를 최우선으로 삼아 지방정부 평가를 시행해왔다. 지방정부가 중앙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 것을 ‘지방정부 기업가주의(local state entrepreneurship)’의 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이상빈·김연철, 2012; 이흥규, 2018).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평가지표 가운데 사회·환경지표의 비중을 늘렸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단기적 경제 성과 달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남영숙, 2015). 더구나 CSR은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과 기업의 인적 연계는 기업이 국가의 압력을 회피하는 일종의 완충(buffering) 지대로 기능했다. 중앙 수준의 인적 연계는 CSR과 관련된 중앙의 신호를 기업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어 CSR 이행을 압박했지만, 지방 수준의 연계 및 네트워크는 중앙에서 유래한 정치적 신호를 차단하고 CSR 이행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입증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및 국가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은 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주요 사회학 저널이 중국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출판한 배경이다(Tsai, 2009).¹⁶⁾ 농촌에서의 집합행동 양상(Lu and Tao, 2017; Lu, 2019), 국가의 정치적 신호가 지방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Ng and He, 2017), 초국적 제도가 AIDS 대항 운동을 성장시킨 배경(Long, 2018) 등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정치경제와 사회변동이 중요한 사회학적 연구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도 두드러진다. 앤드류 월더(Andrew Walder)의 중국자본주의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Walder and Oi, 1999; Walder, Isaacson, and Liu, 2015), 중국 민영기업가들의 정부 복지 사업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Ma and Parish, 2006)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치경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성과가 적지 않지만, 중국기업들이 국가와 맺는 관계와 그 영향력에 관한

1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등 미국의 주요 사회학 저널들은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50편이 넘는 중국 관련 연구를 출판했고(Tsai, 2009), 최근에도 중국 사회에 대한 연구 결과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학계의 중국 연구는 주로 노동 분야에 집중되어왔다. 그동안 『한국사회학』에 실린 현대 중국 사회에 대한 독립적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게재된 노동 연구들이 두드러지고(신철균, 1998; 장영석, 2002), 이 흐름은 2017년 발표된 중국사회와 공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백승욱·조문영·장영석, 2017). 이와 함께 중국 발전국가 관련 연구(윤상우, 2005)를 제외하면, 『한국사회학』에서 중국은 주로 동아시아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고, 본 논문의 주제인 중국의 CSR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CSR의 사회적 구성”이 유일하다(이상민, 2012).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¹⁷⁾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업관계를 축으로 중국의 당-국가가 국가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 CSR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추적하는 본 연구는 중국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당-국가가 국가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 CSR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미진하다는 점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CSR 확산과정에서 국제규범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가체제의 영향이 압도적인 중국의 국가-기업 관계의 작동방식과 변화 양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추가적인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특수한 모델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주력해왔던 사회학계에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다.

CSR 확산 사례가 신제도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CSR이 세계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동형화를 넘어 지역적 변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포프와 마이어는 CSR 규범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역적 변이로 이어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조적 배태성(structural embeddedness), 디커플링(decoupling), 국내화(domestication), 우발적 확산(contingent diffusion), 복수 확산(multiple diffusion), 다층 확산(multi-level diffusion)으로 개념화하고 사례 분석을 시도했다(Pope and Meyer, 2016). 본 연구 역시 국제규범인 CSR 수용 과정에서의 국내적 변형의 측면을 드러냈다. 특히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자원을 독점한 국가를 하나의 동질적 주체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기존의 동형화 이론을 보완했다.

중국 CSR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양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 연구가 불충분한 가장 큰 이유는 평가지표의 한계 때문이다. CSR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가 구축되고 자료가 누적되면, CSR의 세부 영역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CSR 이행 수준의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기적인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특히 홍콩증권거래소에서 2021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상해 및 심천거래소의 공시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중국의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영문 논문 출판 추이 분석 결과, 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정선욱·정유선, 2020).

본 연구는 중국 CSR 이행 동인에 대한 총론적인 분석이므로, 세부 주제별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복합적 수준에서의 국가와의 연계성이 CSR 도입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기업의 CSR을 활용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으로 이를 개념화했는데(Zhao, 2012), 그 작동방식,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기업 소유구조가 CSR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진전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국유기업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 동시에 민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확대되면서 기업 내 당조직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화웨이(Huawei)와 같이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민영기업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유기업과 혼합소유제기업, 국가 통제가 강한 민영기업과 일반적인 민영기업들의 CSR 이행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소유구조 측면에서의 변화가 중국 CSR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에 대한 연구는 중국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장윤미, 2011)는 관점을 토대로 중국 CSR의 특수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규범으로서의 CSR이 중국의 특수한 상황 및 조건에 의해 변형된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매튼과 문(Matten and Moon, 2008)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의 제도 프레임워크가 CSR 이행 방식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미국과 유럽 CSR 모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른바 명시적(explicit)-암시적(implicit) CSR 모델을 제안했으며, CSR 확산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로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중국, 더 나아가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CSR 모델의 특수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CSR 세부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업을 활용한 빈곤퇴치 노력이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의 연계 측면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글로벌 CSR’의 발전 흐름 및 그 과정에서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이중 기준(double standard)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관심 및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지에 미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면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우. 2007. “세계사회와 인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한국사회학』 41(3): 287-322.
- Koo, Jeong-Woo. 2007. “World Society and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3): 287-322.
- 김남이. 2008.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행정·정치·경제 및 재정 시스템의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19-44.
- Kim, Nam I.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China: Focused o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tical, Economic and Financial System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KCGR)* 12(1): 19-44.
- 남영숙. 2015. “중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의 동인과 제약 요인-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7(2): 243-274.
- Nam, Young Sook. 2015. “Analysis of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China -Focusing on the Role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27(2): 243-274.
- 민인식·최필선. 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 Min, In Sik and Pil Sun Choi. 2010. *STATA Panel Data Analysis*. The Korean Association of STATA.
- 백승욱·조문영·장영석. 2017. “‘사회’로 확장되는 중국 공회(노동조합).” 『한국사회학』 51(1): 39-89.
- Baek, SeungWook, Mun Young Cho, and Young-seog Jang. 2017. “Social Expansion of China’s Trade Union(gonghui): Focusing on Recent Reforms in Guangdo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1): 39-89.
- 서미숙·성효용. 2018. “성별구성이 여성관리자의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9(4): 93-114.
- Seo, Misuk and Hyo-Yong Sung. 2018. “The Effect of Gender Composition on Job Satisfaction of Female Managers.” *Gender Studies* 99(4): 93-114.
- 석준희·이유석·고사랑·김병도. 2017.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한 홍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6(6): 1663-1688.
- Seok, Junhee, Youseok Lee, Sarang Go, and Byung-Do Kim. 2017. “Impact of

- Publiciz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Firm Value.” *Korean Management Review* 46(6): 1663-1688.
- 신철균. 1998. “중국 노동운동의 동향과 국가의 노동력 관리.” 『한국사회학』 32(SPR): 199-234.
- Shin, Chul Kyun. 1998. “Trends of Labor Movement and the Control Over the Working Class in Chin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2(SPR): 199-234.
- 안영환.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부정책에 대한 개념적 모형.” 『환경정책연구』 6(4): 29-54.
- Ahn, Young-Hwan. 2007. “A Conceptual Government Policy Model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6(4): 29-54.
- 유현강영삼이근. 2007. “중국 기업집단의 시장가치와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국제지역연구』 11(3): 260-281.
- Liu, Xin, Young Sam Kang, and Keun Lee. 2007. “Value of Business Groups in China: An Analysis using the Firm-Level Data.”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1(3): 260-281.
- 윤상우. 2005. “‘발전국가’를 준거로 한 중국 성장체제의 평가.” 『한국사회학』 39(2): 135-162.
- Yoon, Sang Woo. 2005. “China’s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al Stat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9(2): 135-162.
- 이관승정선욱. 2011. “중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문헌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및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9(7): 101-113.
- Lee, Kwan Seung and Sun Wook Chung. 2011. “Jung-Gug-Eseoui Gieob-ui Sahoejeog Chaeg-Im[CSR] Gwanlyeon Munheon-E Daehan Choegeun Yeongu Donghyang Mich Jeonmang.” *International Labor Brief* 9(7): 101-113.
- 이남주. 2011. “중국 경제엘리트의 특징과 국가(당)-경제엘리트 관계.” 『아시아문화연구』 21: 33-65.
- Lee, Namju. 2011.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Elites in China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Economic Elites.” *Asian Culture Research* 21: 33-65.
- 이상민. 2012. “동아시아 CSR 의 사회적 구성: 글로벌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41-176.
- Lee, Sang-Min. 2012.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East Asi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cused on Global Economic Recess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5): 141-176.
- 이상반김연철. 2012. “중국 재정분권개혁의 효과와 지방정부-국유기업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5: 21-47.

- Lee, Sang Bin and Yeon Cheol Kim.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na's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and Changes of th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tate Owned Enterpris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65: 21-47.
- 이상빈, 이상윤. 2017. "중국의 당정체제와 국유기업: 정치적 지배논리와 공공선택의 한계." 『현대중국연구』 18(4): 71-100.
- Lee, Sang Bin and Lee Sang Youn. 2017. "The Party-state System and State-Owned Enterprise in China: the Limitations of Political Control and Public Choices."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18(4): 71-100.
- 이상윤. 2017.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이차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2(1): 149-178.
- Lee, Sang Youn. 2017.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32(1): 149-178.
- 이재영. 2016. "중국 '성직관현(省直管縣)' 개혁과 분권화의 강화: 거시적 비영합 게임과 미시적 영합 게임." 『아태연구』 23(2): 207-247.
- Lee, Jaeyoung. 2016. "The Province-Managing-County Reform and the Further Popularized Decentralization: The Macro-Level Non-Zero-Sum Game and the Micro-Level Zero-Sum Gam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3(2): 207-247.
- 이종찬, 윤관진, 계상형. 2018. "중국 지역별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현대중국연구』 20(1): 121-152.
- Lee, Jong Chan, Yoon Gwan Jin, and Jei Sang Young. 2018.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Classified Four Regions."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20(1): 121-152.
- 이종철. 2015.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해외직접투자." 『중소연구』 39(1): 131-172.
- Lee, Jong Chul. 2015. "Chinese Style State Capitalism and It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Sino-Soviet Affairs* 39(1): 131-172.
- 이종철, 강승호. 2012.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당-국가 모델의 의의와 한계." 『한중사회과학연구』 25: 45-78.
- Lee, Jong Chul and Seung Ho Kang. 2012. "Chinese Style State Capitalism: Implications and Shortcomings of Party-State Model."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25: 45-78.
- 이주영. 2015.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국연구』 65: 85-103.
- Lee, Joo Young. 2015. "The Impact of the Chinese CSR on the Management

- Performance.” *Chinese Studies* 65: 85-103.
- _____. 2017. “중국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18(4): 233-265.
- _____. 2017. “The Study on Strategy of Foreign-Funded Enterpris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18(4): 233-265.
- 이준엽. 2007. “중국 기업부실 요인분석-상해, 심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 69-92.
- Lee, Jun Yeop. 2007. “An Analysis of Business Failure in the Chinese Listed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6: 69-92.
- 이흥규. 2018.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과 지방정부 발전경쟁: 산업발전과 생산능력 과잉의 딜레마.” 『한중관계연구』 4(3): 189-220.
- Lee, Hong Gyoo. 2018. “China’s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Policy and Competition among Local States: Dilemma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Overcapacity.”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4(3): 189-220.
- 임석준·모리나. 2019. “미국과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양성과 공통성의 모색.” 『사회적기업연구』 12(1): 3-29.
- Lim, Suk-Jun and Lina Mao. 20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American and Chinese Firms: Searching for Varieties and Commonalities.” *Social Enterprise Studies* 12(1): 3-29.
- 임혜정. 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Lim, Hyejung. 2017.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Panel Ordered Logit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4): 510-534.
- 장영석. 2002. “중국 국유 기업 개혁과 노동관계 변화.” 『한국사회학』 36(3): 79-107.
- Jang Young-seog. 2002.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nd Changes in Labor Rela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6(3): 79-107.
- 장운미. 2011. “중국 기업연구의 동향과 쟁점.” 『중국학연구』 56: 277-323.
- Jang, Youn-Mi. 2011. “Jung-Gug Gieob-Yeonguui Donghyang-Gwa Jaengjeom.” *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 56: 277-323.
- 정상은. 2007.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사회적책임(CSR) 활동 분석.” 『국제지역연구』 11(1): 221-252.
- Chung, Sang Eun 2007. “A Preliminary Review of MNCs Social Responsibilities in China.” *International Area Studies* 11(1): 221-252.

- 정선욱·정유선. 2020. “최근 중국 노동/노사관계 해외 연구 동향 고찰 및 제언.” 『산업관계연구』 30(1): 1-40.
- Chung, Sunwook and Yousun Chung. 2020. “Studies of China’s Labor Relations: An Assessment 2009-2019.”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0(1): 1-40.
- 정중호·윤태희. 2016.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정책 변화: 지방정책과 중앙정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4): 133-165.
- Jeong, Jong-Ho and Taehee Yoon. 2016. “Change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y for the Construction of Party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Local and Central Policies.” *Review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 25(4): 133-165.
- 정한울. 2015. “중국 CSR의 두 얼굴: 중국 소비자의 기업 신뢰와 잠재된 불안요인.” *CSR Monitor* vol 6.
- Jeong, Han-Wool. 2015. “Jung-Gug CSRui Du Eolgul: Jung-Gug Sobijai Gieob Sinloewa Jamjaedoen Bul-An-Yoin.” *CSR Monitor* vol 6.
- KIEP. 20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KIEP. 2014. “A Study on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in China.”
- 杜莹·秦学京·屈荣. 2015. 『中国企业社会责任理论与实践』.
- Du, Ying, Qin Xuejing, and Qu Rong. 2015. *Theory and Practice of Chine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和讯网. 2017. “2016年度社会责任报告排行.”
<http://stockdata.stock.hexun.com/zrbg/Plate.aspx?date=2016-12-31>
- Hexunwang. 2017. “2016 Niándù Shèhuì Zérèn Bàogào Páiháng.”
<http://stockdata.stock.hexun.com/zrbg/Plate.aspx?date=2016-12-31>
- 李岚. 2013. “民营与国有企业政府关系管理的比较研究-以河南省为例.” 『经济经纬』 3: 129-134.
- Li, Lan. 2013.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Management between Private and State-owned Enterprises-Taking Henan Province as an Example.” *Economic longitude* 3: 129-134.
- 宋迎法·吴晓兰. 2012. “企业, 政府与社会关系的研究: 文献述评.” 『社会经纬 理论月刊』 6: 139-143.
- Song, Yingfa and Xiaolan Wu. 2012.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among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Literature Review.” *Social Economic and Theoretical Monthly* 6: 139-143.
- 南方周末. 2019. 「南方周末发布2018年中国企业社会责任排行榜」(2019.1.21).

- Southern Weekend. 2019. 「Nánfāng Zhōumò Fābù 2018 Nián Zhōngguó Qǐyè Shèhuì Zérèn Páiháng Bǎng.」
- 商道纵横. 2015. “全面认识企业社会责任报告.” 商道智汇企业社会责任系列丛书.
- SynTao. 2015.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SynTa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ries.
- 张俊瑞汪方军王鹏. 2010. “上市公司社会责任信息披露影响因素研究.” 『中国总会计师』 85: 55-57.
- Zhang, Junrui, Fangjun Wang, and Peng Wang. 2010. “Research on the Factors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of Listed Companies.” *China Chief Accountant* 85: 55-57.
- 唐跃军左晶晶李汇东. 2014. “制度环境变迁对公司慈善行为的影响机制研究.” 『经济研究』 34(4): 713-726.
- Tang, Yuejun, Jingjing Zuo, and Huidong Li. 2014. “The Impact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Transition on Corporate Philanthropic Behavior.” *Comparative Economics* 34(4): 713-726.
- 王亮赵定涛. 2006. “企业-政府互动依赖关系与企业政治行为.” 『公共管理学报』 3: 12-17.
- Wang, Liang and Dingtao Zhao. 2006. “Business-Government Interdependence and Business Political Behavior.”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3: 12-17.
- 叶陈云叶陈毅姜玲玲. 2019. “企业社会责任信息披露因素、质量及效果研究综述：一个理论分析框架.” 『商业会计』 15: 68-71.
- Ye, Chenyun, Chenyi Ye, and Lingling Jiang. 2019. “A Review of the Research on the Factors, Quality and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A Theoretical Analysis.” *Commercial Accounting* 15: 68-71.
- 钟马·徐光华. 2019. “企业会使用慈善捐赠响应强制导向企业社会信息制度吗？- 基于准实验研究的证据.” 『财会通讯』 36: 8-10.
- Zhong, Ma and Guanghua Xu. 2019. “Will Companies Use Charitable Donations to Respond to Mandatory Corporate Social Information Systems?: Evidence Based on Quasi-Experimental Research.” *Finance and Accounting Newsletter* 36: 8-10.
- Aguilera, Ruth, Deborah Rupp, Cynthia Williams, and Jyoti Ganapathi. 2007. “Putting the S Back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Multilevel Theory of Social Change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 836-863.
- An, Yahui. 202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Overseas Income.” *Finance Research Letters* 101594.
- Ansari, Shahzad(Shaz), Juliane Reinecke, and Amy Spaan. 2014. “How are Practices

- Made to Vary? Managing Practice Adaptation i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Organization Studies* 35(9): 1313-1341.
- Backer, Larry C. 2014. “Chin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National Characteristics: Coherence and Dissonance with the Global Business and Human Rights Project.” in *Human Rights and Business: Moving Forward, Looking Back*. Penn State Law Research Paper No. 26-2014.
- Campbell, John L. 2007. “Why Would Corporations Behave in Socially Responsible Ways? An Institutional The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 946-967.
- Chen, Jie and Bruce J. Dickson. 2010. *Allies of the State: China’s Private Entrepreneurs and Democratic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ung, Yan-Leung, Dongmin Kong, Weiqiang Tan, and Wenming Wang. 2015. “Being Good When Being International in an Emerging Economy: The Case of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0(4): 805-817.
- Cole, Wade M. 2012. “Human Rights as Myth and Ceremony? Re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Treaties, 1981-200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4): 1131-1171.
- Dentchev, Nikolay A., Elvira Haezendonck, and Mitchell van Balen. 2017. “The Role of Governments in the Business and Society Debate.” *Business & Society* 56(4): 527-544.
- Dickson, Bruce J. 2008. *Wealth into Power: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ori, Gili S., Guiseppe Delmestri, and Achim Oberg. 2013. “Branding the University: Relational Strategy of Identity Construction in a Competitive Field.” *Trus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134-147.
- Fox, Tom, Halina Ward, and Bruce Howard. 2002. *Public Sector Roles in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Baseline Study*. Washington, DC: World Bank.
- Frank, David J., Wesley Longhofer, and Evan Schofer. 2007. “World Society, NGOs and Environmental Policy Reform in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8(4): 275-295.
- GoldenBee. 2017. “Research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in China 2017.”
- Gond, Jean-Pascal, Nahee Kang, and Jeremy Moon. 2011. “The Government of Self-Regulation: On the Comparative Dynamics of Corporate Social

- Responsibility.” *Economy and Society* 40(4): 640-671.
- Gondo, Maria B. and John M. Amis. 2013. “Variations in Practice Adoption: The Roles of Conscious Reflection and Discour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8(2): 229-247.
- Guanghua-Yintai Center for Philanthropy and Social Impact. 2017. “Chinese Public Firms’ Sustainability Index 2016.” Developed by Guanghua School of Management Peking University.
- Guo, Mengmeng, Luo He, and Ligang Zhong. 2018. “Business Group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China.” *Emerging Markets Review* 37: 83-97.
- Hafner-Burton, Emilie M., Kiyoteru Tsutsui, and John W. Meyer. 2008.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Repressive States and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Sociology* 23(1): 115-141.
- Hao, Dong Yang, Guo You Qi, and Jing Wang. 201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l Controls, and Stock Price Crash Risk: The Chinese Stock Market.” *Sustainability* 10(5): 1-22.
- Heiduk, Guenter and Agnieszka McCaleb. 2013. “CSR Strategies in Greater China: Global, East Asian, American, European Styl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ics* 37(1): 169-189.
- Ho, Virginia. 2013. “Beyond Regulation: A Comparative Look at State-Centr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Law in China.” *Vand. J. Transnat’l L* 46: 375-442.
- Huang, Dongya and Chuanmin Chen. 2016. “Revolving Out of the Party State: the Xiahai Entrepreneurs and Circumscribing Government Power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97): 41-58.
- Huang, Haifeng and Zhenrui Zhao. 2016. “The Influence of Political Connection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Listed Private Companie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1): 9.
- Ilgen, Thomas L.(ed.). 2003. *Reconfigured Sovereignty: Multi-Layered Governance in the Global Age*. Gower Publishing, Ltd.
- Jones, Lee and Yizheng Zou. 2017. “Rethinking the Rol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s Rise.” *New Political Economy* 22(6): 743-760.
- Kao, Erin H., Chih-Chuan Yeh, Li-Hsun Wang, and Hung-Gay Fu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Performance: Evidence in China.”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51: 155-170.

- Kassinis, George and Nikos Vafeas. 2006. "Stakeholder Pressure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9(1): 145-159.
- Kolk, Ans and Stephen Tsang. 2017. "Co-Evolution in Relation to Small Cars and Sustainability in China: Intera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with Business." *Business & Society* 56(4): 576-616.
- Lau, ChungMing, Yuan Lu, and Qiang Liang.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A Corporate Governance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6(1): 73-87.
- Li, Kun, Nasrin R. Khalili, and Weiquan Cheng. 20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in China: Trends, Context, and Impact on Company Performance." *Sustainability* 11(2): 354.
- Li, Sihai, Xianzhong Song, and Huiying Wu. 2015. "Political Connectio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Philanthropy in China: A Strategic-Pol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9(2): 399-411.
- Liao, Lin, Teng Philip Lin, and Yuyu Zhang. 2018. "Corporate Board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surance: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0(1): 211-225.
- Lim, Alwyn and Kiyoteru Tsutsui. 2012. "Globalization and Commit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oss-National Analyses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Economy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1): 69-98.
- Lin, Li-Wen. 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ndow Dressing or Structural Chang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8(1): 64-100.
- Long, Yan. 2018. "The Contradictory Impact of Transnational AIDS Institutions on State Repression in China, 1989-201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4(2): 309-366.
- Lu, Yao. 2019. "Empowerment or Disintegration? Migration, Social Institutions, and Collective Action in Rural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5(3): 683-729.
- Lu, Yao and Ran Tao. 2017.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ollective Action: Lineage Networks, Semiautonomous Civic Associations, and Collective Resistance in Rural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6): 1726-1774.
- Luo, Xiaowei Rose, Danqing Wang, and Jianjun Zhang. 2017. "Whose call to answer: Institutional complexity and firms' CSR report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0(1): 321-344.
- Lyon, Thomas and John Maxwell. 2011. "Greenwash: Corporate Environmental

- Disclosure Under Threat of Audit.”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20(1): 3-41.
- Ma, Dali and William L. Parish. 2006. “Tocquevillian Moments: Charitable Contributions by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Social Forces* 85(2): 943-964.
- Marquis, Christopher and András Tilcsik. 2016. “Institutional Equivalence: How Industry and Community Peers Influence Corporate Philanthropy.” *Organization Science* 27(5): 1325-1341.
- Marquis, Christopher and Cuili Qian.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in China: Symbol or Substance?” *Organization Science* 25(1): 127-148.
- Marquis, Christopher, Lynn Yin, and Dongning Yang. 2017. “State-Mediated Globalization Processes and the Adop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in China.”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3(1): 167-191.
- Matten, Dirk and Jeremy Moon. 2008. ““Implicit” and “Explicit” CSR: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2): 404-424.
- McGuire, Jean, Thomas Schneeweis, and Ben Branch. 1990. “Perceptions of Firm Quality: A Cause or Result of Firm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16(1): 167-180.
- Meyer, John W. 2000. “Globalization Sources and Effects on National States and Societies.” *International Sociology* 15(2): 233-248.
- Ng, Kwai Hang and Xin He. 2017.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Logics of Legal Commensuration: Blood Money and Negotiated Justice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4): 1104-1143.
- Ning, Chong, Ying Hao, Zhibo Liu, and Yuting Liu. 2019. “Business Social Norms from Oversea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a.”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DOI: 10.1080/16081625.2019.1600416.
- Noronha, Carlos and Stefanie X. Wang. 2014. “Corporate Social Disclosure and Performance Gap: Greenwashing Foxconn’s Shenzhen Factories.” in *Corporate Social Disclosure: Critical Perspectives in China and Japan*, edited by Noronha, Carlos. Springer.
- Peng, Mike and Yadong Luo. 2000. “Managerial Ties and Firm Perform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Nature of a Micro-Macro Lin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3): 486-501.
- Piao, Yiling, Young-Ryeol Park, Soonkyoo Choe, and Youjin Baik. 2018. “International

-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of Chinese Listed Firms: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lack.”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9(3): 85-112.
- Pope, Shawn and John W. Meyer. 2016. “Local Variation in World Society: Six Characteristics of Global Diffusion.”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and Political Sociology* 3(2-3): 280-305.
- Pun, Ngai. 2008. ““Reorganized Moralism”: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Labor Codes.” in *Privatizing China: Socialism from Afar*. Cornell University Press.
- Sial, Muhammad, Chunmei Zheng, Nguyen Vinh Khuong, Tehmina Khan, and Muhammad Usman. 2018. “Does Firm Performance Influe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of Chinese Listed Companies?” *Sustainability* 10(7): 2217.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taCorp. 2013. *Stata 13 Base Reference Manual*.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Sum, Ngai-Ling, and Pun Ngai. 2005. “Globalization and Paradoxes of Ethical Transnational Production: Code of Conduct in a Chinese workplace.” *Competition & Change* 9(2): 181-200.
- Tilly, Charles.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Oxford: Blackwell.
- Tsai, Wen-hui. 2009. “China Studies and American Sociology: A Quantitative Account of the Growth of Research on China in American Sociology, 1950-2008.”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16: 69-81.
- Walder, Andrew, Andrew Isaacson, and Qinglian Liu, 2015. “After State Socialism: The Political Origins of Transitional Recess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2): 444-468.
- Walder, Andrew and Jean Oi. 1999.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edited by Jean Oi and Andrew Wal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ng, Jiangyu. 2014. “The Political Logic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Cornell Int’l LJ* 47: 631-670.
- Wang, Lei and Heikki Juslin. 2009. “The Impact of Chinese Cul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Harmon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3): 433-451.
- Wang, Yuhua. 2017. “Betting on a Princeling.”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52(4): 395-415.

- Wang, Zhi, Daniel Reimsbach, and Geert Braam. 2018. "Political Embeddedness and the Diffus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in China: A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CSR Performanc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98: 1185-1197.
- Wooldridge, Jeffrey M. 2016.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 Workman, Daniel. 2020. "China's Top 10 Exports."
<http://www.worldstopexports.com/chinas-top-10-exports/>
- Wu, Chengsong, Weizheng Tang, and Lijuan Zhang. 2014. "Political Connections, Property Rights and Tunneling: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s SH A-share Listed Companies in Manufacturing." *Chines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 49-62.
- Xiong, Bo, Weisheng Lu, Martin Skitmore, K. W. Chau, and Meng Ye. 2016. "Virtuous Nexus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A study of Construction Enterprises i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29: 223-233.
- Yin, Juelin. 2017. "Institutional Driver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Emerging Economy: A Mixed-Method Study of Chinese Business Executives." *Business & Society* 56(5): 672-704.
- Yu, Xiaomin. 2008. "Impacts of Corporate Code of Conduct on Labor Standards: A Case Study of Reebok's Athletic Footwear Supplier Factory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81(3): 513-529.
- Zhang, Jianjun, Christopher Marquis, and Kunyuan Qiao. 2016. "Do Political Connections Buffer Firms from or Bind Firms to the Government? A Study of Corporate Charitable Donations of Chinese Firms." *Organization Science* 27(5): 1307-1324.
- Zhao, Jingchen. 201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China*. Edward Elgar Publishing.
- Zhao, Meng. 2012. "CSR-Based Political Legitimacy Strategy: Managing the State by Doing Good in China and Russ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4): 439-460.
- Zhong, Ma, Rong Xu, Xinyi Liao, and Shuangli Zhang. 2019. "Do CSR Ratings Converge in China? A Comparison Between RKS and Hexun Scores." *Sustainability* 11(14): 3921.
- Zuo, Wei, Mark S. Schwartz, and Yuju Wu. 2017. "Institutional Forces Affec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havior of the Chinese Food Industry.”
Business & Society 56(5): 705-737.

김대욱은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권사회학,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 윤리, 중국지역연구이다. 최근에는 CSR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정우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학, 국제인권, 국제개발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현재 성균관대 인권과 개발센터 소장, 성균관대 교수협의회 대의원, 한국개발정책학회 이사, 한국인권학회 부회장,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법원행정처 및 서울중앙지법 양성평등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미국사회학회(ASA) 글로벌·초국가 세션 분과 선출직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2019년 올해의 청소년교양도서로 선정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북스톤)를 출간했다.

[2020.03.16 접수; 2020.07.07 수정; 2020.08.04 게재확정]

Political Signaling and International Pressures :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hinese Listed Companies

Dae-Wook Kim
Korea University
Jeong-Woo Koo
Sungkyunkwan University

What accou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This article investigates to what extent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is attributable to world cultural pressure and political embeddedness. In an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s raised, we combined the Hexunwang's CSR rating with companies' time-series data. The random-effects ordered logit model was applied for the panel data from 2010 to 2016 for 2,506 listed companies in China. The results show that the variables derived from political embeddedness account have more explanatory power, especially not at the local level but central level connections.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th a nuanced understanding of central and local factors involving state-business relations.

Key words: Chinese listed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state-business relations, political signaling, central-local relations, neo-institutionalism, ordered logit model

〈Appendix 1〉 Indicators of Hexunwang's CSR Rating

Stakeholder	Subject	Indicator
Stockholder (30%)	Revenue (10%)	Return on equity (2%)
		Return on Assets (2%)
		Main business profit margin (2%)
		Cost expense margin (1%)
		Earnings per share (2%)
	Debt Repayment (3%)	Undistributed earnings per share (1%)
		Quick ratio (0.5%)
		Current ratio (0.5%)
		Cash ratio (0.5%)
		Shareholder ratio (0.5%)
	Allocation (8%)	Asset liability ratio (1%)
		Dividend loan ratio (2%)
	Punishment (5%)	Dividend yield (3%)
		Dividend ratio of profit distribution (3%)
		No. of penalties imposed by the exchange (5%)
Innovation (4%)	Product development expenditure (1%)	
	Technology innovation concept (1%)	
	Number of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s (2%)	
Employee (15%)	Accomplishment (5%)	Average income per employee (4%)
		Employee training (1%)
	Safety (5%)	Safety inspection (2%)
		Safety education (3%)
	Employee Care (5%)	Consolation awareness (1%)
		Consolation people (2%)
	Consolation money (2%)	
Supplier and Customer (15%)	Quality Management (7%)	Quality control awareness (3%)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4%)
	Warranty (3%)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3%)
		Supplier fair competition (3%)
Credit (5%)	Anti-bribery education (2%)	
	Environmental awareness (2%)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3%)	
Environment (20%)	Environmental Governance (20%)	Environmental protection investment (5%)
		Number of pollution products (5%)
		Number of energy saving products (5%)
		Income tax rate of total profit (10%)
Society (20%)	Contribution Value (20%)	Public donation amount (10%)

Source: Hexunwang(2017).

〈Appendix 2〉 Correlation Matrix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CSR Grades												
2. CSR Scores	0.88 *											
3. SOEs	0.19 *	0.17 *										
4. State-Owned Stock Ratio	0.06 *	0.06 *	0.33 *									
5. Political Ties (central)	0.07 *	0.07 *	-0.04 *	0.00								
6. Political Ties (local)	0.07 *	0.04 *	0.20 *	0.11 *	0.03 *							
7. International Experience	0.03 *	0.06 *	-0.13 *	-0.07 *	0.04 *	-0.03 *						
8. Boao Forum Membership	0.06 *	0.06 *	0.06 *	-0.00	0.05 *	0.03 *	0.04 *					
9. Export Industry	-0.04 *	-0.04 *	-0.16 *	-0.09 *	0.03 *	-0.10 *	0.06 *	-0.03 *				
10. Foreign Investment	0.15 *	0.16 *	0.11 *	0.04 *	0.03 *	0.05 *	0.07 *	0.09 *	-0.04 *			
11. Assets	0.35 *	0.39 *	0.38 *	0.14 *	0.09 *	0.14 *	0.05 *	0.12 *	-0.13 *	0.32 *		
12. ROA	0.01	0.02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2 *	
13. Age	0.01	0.02	0.14	-0.07	-0.10	0.06	-0.10	-0.02	-0.11	0.02	0.13	0.01

Note: It excludes variables for industry sectors and areas due to the space limit. * p<.001.